진관사, 가을 밤 '명품공연'으로 채우다

9월 21일 '진관사 달오름 음악회-진관미학'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최여완·장하은 등 청년음악가 6팀
이화국악관현악단, 가릉빈가합창단
행사 전 비천무·사자춤 특별공연도
전통과 현대 어우러진 풍성한 무대


진관사가 가을밤에 뜬 둥근 보름달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물들였다. '진관사 달오름 음악회-진관미학' 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2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장대비에 무더위가 한풀 꺾인 가운데, 진관사가 가을밤에 뜬 둥근 보름달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물들였다.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가 9월 21일 경내 대웅전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진관사 달오름 음악회-진관미학'을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국악과 재즈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풍성한 무대로 대중들에게 힐링과 평안을 선사하고 진관사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이번 음악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 등 불교계 스님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용민·배현진·박주민·이재정·진선미·김영우·고동진·신동욱 국회의원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또한 찬디마 아베이라쓰나 스리랑카 장관, 아밋 쿠마르 인도 대사, 볼프강 앙거홀처 오스트리아 대사, 안네 카리한센 오빈 노르웨이 대사 등 11개국의 외교사절과 2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이날 음악회는 어린이들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막을 올렸다. 진관사 가릉빈가 어린이 합창단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반달'과 국악 동요 '모두가 꽃이야'를 불러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어 가야금 연주자 주보라는 신곡 '소풍'으로 빼어난 연주 실력을 뽐냈다. 정가 보컬리스트 최여완의 '저기 저 꽃'은 김가현의 소금 연주와 함께해 가을밤 정취를 더했다.

재즈 보컬리스트 서민아의 '머시(mercy)', 루카 마이너의 '플라이 미 투 더 문'은 고즈넉한 천년고찰을 아름다운 재즈 선율로 물들였다. 관객들은 사찰을 가득 메운 재즈에 취해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밴드2' 출신의 기타리스트 장하은, 락 보컬리스트 김한겸의 기타 연주와 노래로 꾸며진 무대는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이화국악관현악단(지휘 원영석)은 동서양 조화의 아름다움을 음악으로 표현해냈다. 김민주의 첼로 연주와 함께 '희문', '달빛항해'가 대웅전 앞마당에 장엄하게 울려 퍼져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끝으로 주보라·최여완·서민아의 '아름다운 나라'로 음악회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진관사 달오름 음악회-진관미학은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이 공연 연출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은 인사말에서 "박 이사장이 진관사에 온 지 10년째 되던 해에, 사찰에 '문화의 재발견'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했다"며 "이에 그날 바로 진관사 문화위원장으로 위촉했고, 오늘 이렇게 성대한 음악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마음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진관사에 오신 여러분들은 종교와 문화를 넘어 모두가 '꽃'같은 존재"라며 "오늘 야심차게 진관미학(음악회)을 준비했는데 모두 편안히 감상하시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축사를 통해 "진관사는 대한민국과 세계의 명사들이 현대적인 언어와 정서로 힐링 받는 한국의 '영빈관'으로 볼 수 있다"며 "오늘 '진관미학' 행사를 통해 마음을 힐링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마음껏 향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진관사는 한국의 보물 중의 보물"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악회에 앞서 내빈들을 맞이하는 특별공연이 진행됐다. 진우 스님, 상진 스님, 오세훈 서울시장 등 내빈들은 달을 형상화한 등을 들고 경내 일주문에서 극락교·해탈문까지 펼쳐진 사자춤, 풍물놀이, 비천무 공연을 감상했다.

봉은사, 1230주년 개산대재 맞아 전통문화축제

10월 3~11일, 불사·문화행사 개최
생전예수재 49일 회향기도 봉행도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가 개산대재 1230주년을 맞아 10월 3~11일 경내에서 역대조사 다례재를 비롯한 세대통합 전통문화축제 '1230주년 봉은사 개산대재 전통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축제의 시작인 10월 3일에는 경내 대웅전에서 역대조사 스님들의 업적을 계승하고 뜻을 기리는 '역대조사 다례재'를 연다. 10월 5일은 판전의 주요 소장 문화재 〈화엄경판 인경본〉을 정대(頂戴)하고 봉은사 도량과 법계도를 요잡(繞匝, 부처를 중심으로 주위를 돌아다니는 일)하는 '정대불사'를 진행한다. 또한 10월 10~11일 양일간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52호 '봉은사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회향을 불교 전통방식으로 봉행한다.

더불어 진행되는 전통문화축제는 '체험, 전시, 공연' 등이 집합된 문화의 장이다. 전통 차 문화를 체험하는 '찻자리 및 다식체험'이 준비됐으며 '한복체험 및 인생네컷'에서는 전통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다. '사찰음식 홍보행사'에서는 사찰음식 시식과 떡메치기 체험이 가능하다. 전통지화와 전통민화 등 전통기념품을 만들 수 있는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다채로운 전통문화 전시도 마련된다. 사찰의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은 '전통사찰 사진전시회'를 비롯해 중국 리야오쯔 선생의 '세계의 옛 마을 서화 순회전'이 열리며 '찻사발 전시전'도 열린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봉은사와 MOU를 체결한 지자체 5곳(담양군, 장성군, 해남군, 평창군, 부여군)이 참여하는 '도농상생 직거래장터'도 열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통문화 공연에서는 조선시대 왕실이 봉은사 방문을 재현한 '왕실의 산책'과 '봉산탈출' '난타공연' '마당놀이' '태권도 시범공연 및 전통무용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한 봉은사는 10월 9일에 경내 교육관에서 '나청호 대선사 학술세미나'를 열고 을축년(1925년) 대홍수로 목숨을 잃을 뻔한 재난민 708명을 구한 나청호 대선사의 업적을 기릴 계획이다.

봉은사 측은 "1230주년 봉은사 개산대재 전통문화축제는 나와 내 가족, 주위 생명의 가피를 기원하는 행사"라며 "풍요로운 가을날 지역주민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선사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가령 기자

성북구사찰연, '왕실다례' 첫 재현 나선다

사찰서 이뤄진 '진전다례'
10월 6일, 서울 흥천사서

사찰에서 행해진 왕실다례인 '진전다례'를 성북구사찰(사암)연합회가 처음으로 재현에 나선다.

성북구사찰사암연합회(회장 원경 스님, 심곡사 주지)가 9월 23일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찰음식 축제마당&왕실다례 재현' 행사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심곡사와 성북구사찰연합회가 10월 6일 서울 흥천사에서 왕실다례인 '진전다례'를 최초로 재현해 눈길을 끈다. 불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전통문화의 다양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전은 진(眞)이라 불리는 국왕의 초상화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는 전각이며, 술 대신 차를 올려 '진전다례(眞殿茶禮)'라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396년(태조 5년) 신덕왕후의 정릉 옆에 왕실 원당인 흥천사가 창건됐는데, 이곳에 조선 태조의 아버지 '환왕'을 위한 진전을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기록을 바탕으로 심곡사 다인(茶人)들로 구성된 감로다도회가 오전 10시 50분부터 흥천사 극락보전에서 진전다례 재현에 나설 예정이다. 다례 재현이 끝나면 오후 12시 10분까지 경내 상부 주차장 무대에서 판소리(이창준), 거문고(이다경), 전통 무용(구슬주머니), 국악기 연주(연 앙상블) 문화 공연이 이어진다.

김세영 성북구사찰연합회 종무실장은 "사찰에서 이뤄지는 왕실다례 재현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흥천사는 지금도 신덕왕후 다례제를 지내는 왕실 사찰 인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불교와 전통문화를 동시에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북구사찰연합회장 원경 스님은 "지역 주민들이 불교문화와 정신을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성북구사찰연합회는 사찰음식축제마당과 왕실다례 재현행사를 특별히 마련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채로운 사찰음식을 한 자리에서 체험·시식할 수 있는 '제2회 사찰음식 축제마당'도 흥천사 일대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성북구 사찰 7곳(심곡사, 흥천사, 관음사, 경국사, 운선암, 보덕선원, 방생선원)이 함께 힘을 모아 사찰음식의 진수를 선보인다. 김민재 기자

한·스복지재단 신임 이사에 곽홍규 회장

도심 스님, 9월 24일 임명
"자생력 위해 힘 써달라"



곽홍규 재스리랑카 한국경제인협의회장이 한국-스리랑카문화사회복지재단 신임 이사로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도심 스님은 9월 24일 곽홍규 신임 이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도심 스님은 "한국-스리랑카문화사회복지재단은 종단의 첫 해외 사업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며 "운영 및 홍보 측면에서 종단이 물심양면 도울테니 자생력 있는 복지타운 구성을 위해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곽홍규 신임 이사는 "문화재단 감사 난다 라타나 스님의 입적으로 빈자리가 크지만 노력하겠다"면서 "스리랑카에서 가장 좋은 복지타운이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종단 내외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곽 이사는 동국대 영문학과를 졸업 후, 주식회사 효성에서 근무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16~20기 위원으로 활동했다. 스리랑카 한인회 회장, 아시아 한인회 총연합회 부회장, 스리랑카 한인불교 신도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한국-스리랑카문화사회복지재단은 2004년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당시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 2008년 스리랑카 말레에와 비앙고다 지역에 스리랑카 조계종 복지타운을 건립해 쓰나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수용했다. 김가령 기자

2024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4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신청자격
1.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신청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모바일앱(Play스토어) 〈내곁에 국민연금〉 설치 ▶ 로그인(간편인증) ▶ 우측상단 증명발급 선택 ▶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선택 ▶ 화면 맨 하단 팩스발급 선택 ▶ 팩스번호 입력 후 확인 선택 ▶ 요청하신 팩스번호로 발급 완료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방문 발급
4)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전화신청(팩스로 받을 수 있음)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10월 1일(화) ~ 10월 31일(목)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 → 지원금 입금(상반기 7월, 하반기 12월 지원 예정)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1.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미제출된 스님
※ 신규 지원신청하신 분들은 차기년도부터 해당되며, 기지원자 스님은 보험료 납부종료 시까지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지원 혜택이 가능함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 분한신고미필 및 결계 미등재 스님
4.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보험료 미납하신 스님
7. 군 복무 중인 스님
8. 기타
※ 위 항목에 해당되시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중도에 변동사항 발생 시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1인당 월 36,000원(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문의처
1. 문의처 : 02-2011-1980~1, 1726~7
2. 기 타 :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게재

불기2568(2024)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성 화